

<한 · 중 화학산업 협력>

“한 · 중 화학산업 협력의 틀 마련하자”

화학경제연구원 박종우 원장(본지 발행인)은 지난 9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중국화학공업부 국제합작사 총책임자인 盛琨田국장을 만나 「한중화학산업협의회」 설립등 한 · 중 화학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 · 중간의 화학무역 · 합작 등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입장을 타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盛국장 : 한 · 중 화학산업간의 협력을 위한 박원장님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중국화학공업부를 방문해 주신점 중국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한 · 중 화학산업간 협력에 있어 실질 업무를 관장하실 周玉宣 중국국제상회 화공상회의 부비서장님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周부비서장 :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마쳐 향후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 교류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원장 : 「'94 국제화공전람회」준비로 바쁘신 와중에도 중국측을 대표해 이자리에 나와주신 두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담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어 향후 2000년대 태평양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과 중국의 화학산업계에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盛국장 : 지난 6월 李之彬 부부장의 한국 방문시 박원장님을 만나 한중간 화학산업 교류 촉진을 위한 방안에 관해 일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후 우리 화학공업부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화학기업들의 책임자들을 만나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화학기업 대표들이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설립에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본 협의회 설립의 근본취지가 양국 화학산업간 교류활성화와 인력교류 등 현시점에서 양국 화학산업간의 가장 긴요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화학공업부부장님도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장 : 중국측을 대표해 협의회 결성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盛국장님의 노력에 한국 화학산업계를 대표해 감사 드립니다. 현재 중국 화학공업부의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설립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

盛국장 : 귀 연구원에서 일차로 작성해 보내주신 협의회 설립에 관한 5장42조의 협의회 요강을 검토한 후 화학공업부 부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관조직 구조와는 차이가 있어 화학공업부의 모든 업무추진 결과는 국무원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원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상 많은 애로점이 있어 중국화학공업부내의 국제합작사에서 이 문제를 총괄하도록 지시를 받고 오늘 이자리에 중국 화학공업부를 대표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원장 : 저희 화학경제연구원 역시 한국의 상공자원부 관계자를 만나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설립에 대한 내용을 심도깊게 논의했으며, 민간연구기관으로서 양국 화학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盛국장 : 한국기업들의 협의회 설립에 대한 반응과 한국 화학기업들과 화학경제연구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朴원장 : 중국 화학기업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화학기업 대표들 역시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에 대해 높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한국의 화학산업에 대한 시장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으며, 상호협조 관계를 건지하고 있습니다.

盛국장 : 그렇다면 화학경제연구원은 한국 화학기업들에 대해 통제가 가능합니까 ?

朴원장 : 화학경제연구원과 한국 화학기업들과의 관계는 명령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회조직과는 달리 명령하달식의 조직구조보다는 자유경쟁하에서 모든 사회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경제연구원이 이번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실무기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없이 임의집행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양국 화학기업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통해 본 협의회를 설립한다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의회 설립에 국내기업들의 서명이 있으면 명령식이 아닌 협력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盛국장 : 朴원장님께서서는 화학경제연구원과 중국의 화학공업부가 각각 양국 화학산업을 대표해 합의서에 서명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대로 화학공업부가 중국측 대표로 나설 경우 설립과정에서 법규상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 있어 중국 화학공업부로부터 대표자격을 부여 받은 국제합작사와 서명, 합의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朴원장 : 중국화학공업부 국제합작사는 어떤 기관이며, 중국 화학공업부 조직내에서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

盛국장 : 중국화학공업부는 총 11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국제합작사는 이중 하나로 93년 국제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구성되었으며, 대외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제합작사가 서명하는 모든 대외협력사업은 실질적으로 중국 화학공업부의 서명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국제합작사는 귀 연구원이외에 8개국가와 화학산업 협력협의체를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朴원장 :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중국측이 생각하고 있는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의 운영방안은 어떻습니까 ?

盛국장 : 중국은 모든 신규업무에 있어 공작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연구원이 동의한다면 실무기관에 대한 용어에 있어 중국측 사정을 따랐으면 합니다. 즉 중국화학공업부 산하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공작조를 구성, 산하에 조장을 두어 한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형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朴원장 : 한국에서는 상시적인 사무국을 각국에 설치, 이를 통해 협의회를 운영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盛국장 : 중국에서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성할 경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공작조를 구성해 실무작업에 들어갈 경우 비준을 받기도 쉽고 빠른 작업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정부로서는 현시점에서 실무적인 일부터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큰 문

제가 없다면 공작조를 구성해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설립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박원장 : 물론 현재 중국과 한국간의 덤핑문제 등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보다 빠른 실무작업 추진을 원하는 중국측 입장은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 화학산업 교류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작조를 조직하는 것과 아울러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盛국장 : 그렇다면 일단 양국간에 원칙적인 합의에 이른점으로부터 실질적인 업무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서명, 빠른 시일안에 실무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원장 : 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설립의 취지를 찾기보다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양국 화학산업의 교류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는 협의회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은 근본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양측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盛국장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협의회를 설립하여 양국 화학산업의 교류증진에 힘써야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공작조를 구성해 실무적인 작업들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여 보다 광범위한 조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좋을듯 합니다. 당장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변호사 선임문제와 상대국의 법준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어 시간을 요하므로 설립초기에는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작조란 중국내에서는 모든 대외협력사업 추진시에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국에서 사무국으로 쓰이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박원장 : 공작조가 중국화학공업부를 대표해 양국 화학산업 교류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돌아가 한국의 화학기업 대표 그리고 본 연구원의 경영고문진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측 주장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기로 하겠습니다.

盛국장 : 그러면 공작조를 통한 협의회 설립 작업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문서를 중국측 입장에서 작성하여 귀 연구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정부는 중국산 가성소다에 대해 일차로 반덤핑 혐의로 결론, 최종 판결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 화학공업부내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후 계속된 이번 중국산 액체가성소다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덤핑 결정은 양국 화학산업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화학공업부와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결성을 위해 방문해주신 박원장님께서 한국에 돌아가시면 중국측의 입장을 한국 상공부 및 업계 관계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중국 화학공업부를 대표해 부탁드립니다.

박원장 : 한중간 화학산업의 올바른 무역관행과 교류활성화를 위

해 협의회 설립을 제기한 본인으로서 이번 중국산 액체가성소다 덤핑문제 역시 양국 화학산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측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측 관계자들을 만나 원만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중 양국간 교역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양국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盛국장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이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중화학산업협력협의회」설립에 대한 양국 실무대표자간의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의회 구성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화학산업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朴원장님께 중국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朴원장 : 중국 정부의 초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상호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양국 화학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학저널 1994/10/1>